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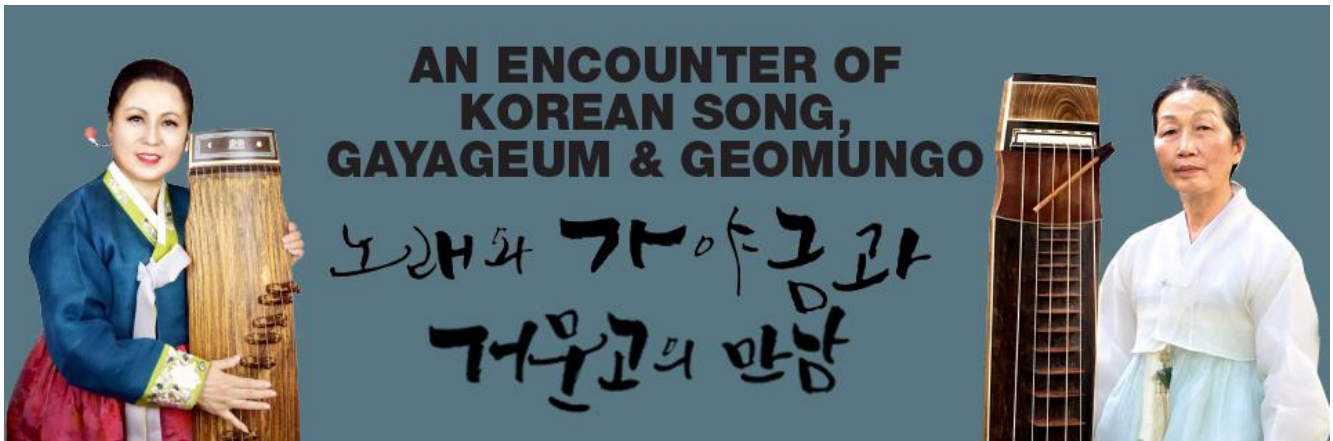


[제2018-8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 10. 24(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ARI Project <노래와 가야금과 거문고의 만남>개최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노래와 가야금과 거문고의 만남”
(An Encounter of Korean Song, Gayageum and Geomungo)
- ▶ 일 시 :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워크숍-2018.11.2(금) 13:30-15:30
공연-2018.11.2(금)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지윤자 가야금 해외무형문화전승회관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열다섯번째 무대로 지윤자 가야금 해외무형문화전승회관 (회장 지윤자)을 선정하여 "노래와 가야금과 거문고의 만남" (An Encounter of Korean Song, Gayageum and Geomungo) 공연을 11.2(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노래와 가야금과 거문고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미주지역에서 창작과 후배양성, 한국국악의 해외선양 등 미주한국국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지윤자 (가야금,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제23호 전수자, 전통 무형문화 해외명예전승자), 박찬응(거문고, 오하이오주립대학 학국학과 교수), 이병상 (대금, 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및 지윤자가야금해외무형문화전승회관 회원 등이 함께, 우리 고유의 흥과 멋이 담긴 전통문화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다.

국악 초심자 등 모든 관객을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찬응 교수의 쉬운 영어해설을 곁들인 이번 공연은 故 성금연 선생이 1960년에 작곡한 가야금병창 '한림학사 방아타령'을 시작으로, 가야금 산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 이별의 애절함을 노래한 '일절통곡',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야금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꽃의 향기', 우렁찬 소리를 술대를 통하여 멋진 산조가락으로 풀어내는 '거문고 솔로', 거문고와 가야금을 함께 연주하며 각기 다른 창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합창', 남도와 경기민요 '새타령, 오봉산, 태평가, 창부타령', 아니리*는 영어로 소리는 한국어로 하는 판소리 솔로 '토끼 수궁에서', 마지막으로 태평소와 사물놀이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아니리: 판소리 창자(唱者)가 한 대목의 소리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정단 장단이 없이 자유리듬(free rhythm)으로 사설을 엮어가는 행위*

특히, 공연당일 11.2(금) 13:30에는 LA 현지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무형문화전수워크숍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지윤자 선생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기본가락과 독주곡 '흥', 15천 가야금을 위한 성금연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 '꽃의 향기'를 전수할 예정이다.

공연을 기획한 지윤자 선생은 "이번 공연은 한국의 풍자학 판소리를 영어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거문고와 가야금의 깊은 가락과 흥겨운 우리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국악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무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찾아주셔서 우리소리의 멋과 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율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노래와 가야금과 거문고의 만남 (프로그램)

* 공연해설/MC : 박찬응

1. 가야금 병창 '한림학사 방아타령'
김애니, 윤숙영, 오인자, 김은혜, 전은숙, 문자연, 전유림, 교수 지윤자
2. 가야금 산조
지윤자, 오인자, 김은혜, 문자연, 전유림, 교수 이병상
3. 판소리 춘향가중 '일절통곡'
박정자 교수 박찬응
4. 꽃의 향기
지윤자, 김은혜, 오인자, 문자연, 교수 이병상
5. 거문고 솔로
박찬응, 교수 지윤자
6. 가야금과 거문고의 합창
박찬응, 지윤자, 교수 이병상
7. 남도와 경기민요 '새타령, 오봉산, 태평가, 창부타령'
서원숙, 박크리스틴, 김애니, 김정자, 전은숙, 이경자, 박정자
8. 판소리 솔로 '토끼 수궁에서'
박찬응
9. 태평소와 사물놀이
이병상, 지윤자, 윤숙영, 서원숙, 김제시카, 김은혜

* 프로그램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윤자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해외명예전승자인 지윤자 선생은 부부 국악인 故 지영희, 故 성금연씨의 딸로 부모와 8남매가 모두 전통음악 연주자인 국악가족의 일원이다. 아버지 지영희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시나위)이며 어머니 故 성금연씨는 제23호(가야금산조) 보유자로, 한국 전통 음악의 기초를 다진 국악인들로 유명하다. 지윤자 선생은 1979년 LA에 온 후 40여년간 전통음악을 가르치면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 무형문화 해외명예전승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지윤자가야금 해외무형문화전승회관의 회장을 맡고 있다.

박찬응

재미와 해학을 곁들인 영어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오하이오주립대학 한국학과 박찬응 교수는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및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2003년)된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영어판소리 공연을 펼쳐왔다.